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기업의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예비조사를 지원하거나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태국 ITD사, 미얀마 다웨이(Dawei)항 투자파트너 물색 중 ----- 2
- 호주 서부주(Western Australia), 엔케텔항(Anketell Port)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9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02-2105-2897, julya7@kmi.re.kr)
 전해경 연구원(02-2105-2982, saei@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ITD사, 미얀마 다웨이(Dawei)항 투자파트너 물색 중

1. 사업배경

- 2008년 5월 1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얀마와 태국 외교장관은 미얀마 다웨이 심수항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
 - 미얀마와 태국은 다웨이 심수항, 다웨이-방콕(태국) 연결도로, 철도를 건설하기로 합의
- 이와 관련 2010년 11월 2일 태국 최대의 종합건설사인 ITD(Italian-Thai Development)사¹⁾와 미얀마 항만청(Myanmar Port Authority), 미얀마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86억 달러 규모의 기본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
 - 기본합의서(계약기간은 60년이며, 연장 가능)는 다웨이 심수항 및 산업단지, 태국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를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웨이 프로젝트의 개발면적은 250km²이며, 2011년 1월 27일 미얀마 정부는 다웨이 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웨이 지역을 미얀마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함
 - 산업단지의 경우 태국 1, 2위 산업단지인 램차방(Lam Chabang)과 마타풋(Map Ta Phut) 지역을 합한 것보다 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최대 규모의 항만 및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 다웨이 개발 프로젝트 >

- 다웨이 심수항 건설
- 4개의 산업단지 건설
 - 석유화학 및 관련 석유화학 단지 : 석유·가스 저장고, 정유시설, 화학공장 등
 - Heavy Industry 단지 : 화력발전소, 제철소, 비료공장 등
 - Medium Industry 단지 : 제지, 타이어, 설탕, 석고, 자동차 공장 등
 - Light Industry 단지 : 봉제, 통조림식품, 건강관리제품, 향유 공장 등
- 태국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
- 주거지역 및 상업지, 레저·휴양지 건설

자료: 주미얀마총영사관, 2011.12.

- 다웨이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며, 2012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2021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

1) 태국과 이탈리아 합작회사

KMI 국제물류위클리

2. 사업내용

- 다웨이항이 위치한 다웨이는 미얀마의 남동쪽 타닌타리(Tanintharyi)주의 주도(capital)로 다웨이강(Dawei River) 입구에 위치하며 안다만해(Andaman Sea)와는 30km 떨어져 있어 해상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임
- 다웨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메콩-인도 경제벨트(MIEC: Mekong-India Economic Corridor)¹⁾와 메콩강 유역(GMS: Great Mekong Subregion)²⁾의 남부경제벨트(Southern Economic Corridor)³⁾에 위치하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함

< MIEC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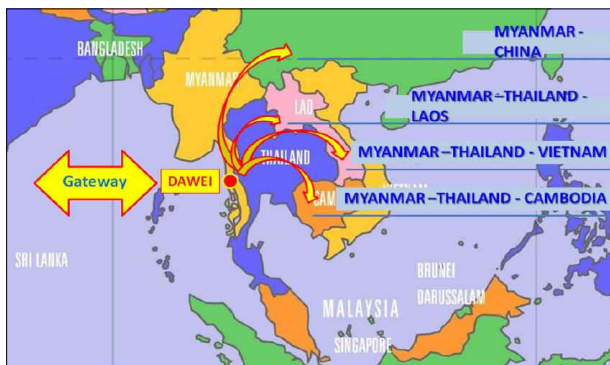


< GMS 남부경제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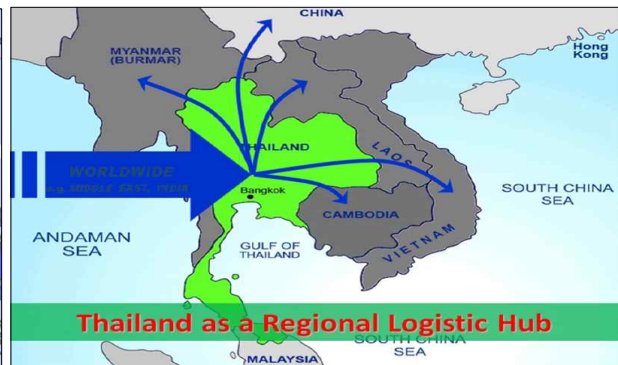


- 미얀마는 다웨이를 육상과 해상으로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 동-서 연결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태국은 다웨이를 태국 서향 화물의 수출통로(다웨이-방콕 350km)로 확보함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임

< 인도차이나의 관문 다웨이항 >



< 인도차이나의 물류허브 태국 >



- 1) ASEAN 연결 마스터 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1)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 2) 아시아 개발은행은 1992년부터 메콩강 유역 국가 및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중국 윈난, 광시) 간의 경제 및 인프라 개발과 인접국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3)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경유 태국 방콕을 연결하며, 현재 방콕과 다웨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 2010년 태국-미얀마간 국경무역 규모는 17억 달러로 2009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2010년 4월 태국-미얀마 공동무역위원회는 양국간 무역규모를 2015년 130억 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 다웨이와 방콕간 거리는 350km이며, 태국 서부지역에는 칸차나부리(Kanchanaburi), 라차부리(Rachaburi), 페차부리(Petchaburi), 사뭇사콘(Samutsakhon) 등을 비롯한 다수의 생산기지가 있어 다웨이항이 유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태국은 남아시아 최대 교역파트너인 인도와 2014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140억 달러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은 다웨이항 중심의 해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함
 - 즉, 다웨이항을 통하여 태국 방콕과 인도 첸나이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연결루트를 구축하기로 함
 - 태국의 대 인도 교역규모는 2001년~2010년 연평균 21.5%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태국의 대 미얀마, 인도, 중동, 아프리카 교역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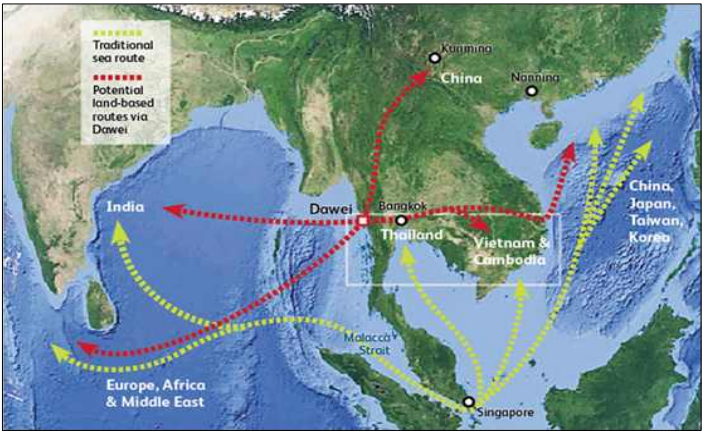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미얀마	1,164	1,238	1,349	1,958	2,492	3,111	3,274	5,108	4,344	4,922	17.4%
인도	1,155	1,189	1,520	2,050	2,796	3,462	4,749	5,899	4,956	6,675	21.5%
중동	2,085	2,199	2,291	3,402	4,013	4,823	5,815	7,910	6,887	7,424	15.2%
아프리카	7,339	7,208	9,422	13,476	18,583	23,071	24,848	35,908	24,578	29,594	16.8%
합계	11,743	11,834	14,582	20,886	27,884	34,467	38,686	54,825	40,765	48,615	17.1%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 향후 다웨이 심수항 개발이 완공되면 태국발 서향 화물은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 직수송이 가능해져 전세계 가장 번잡한 해상 교역루트인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것에 비해 4~5일의 수송시간 단축, 그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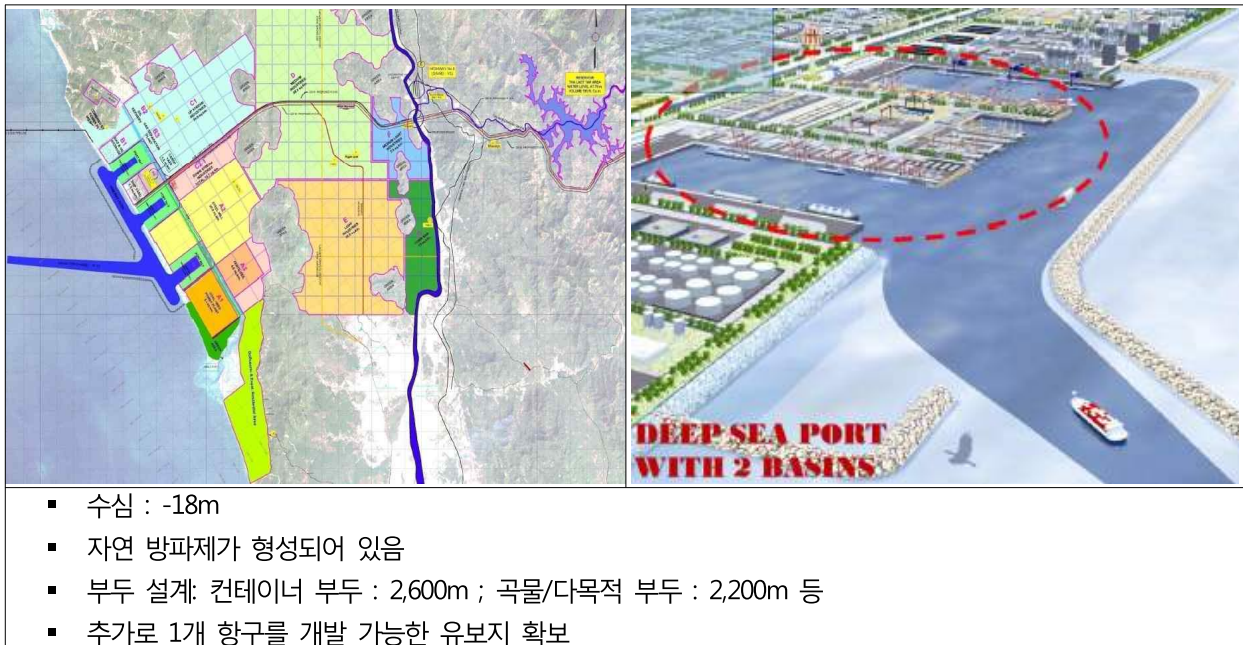
< Dawei항의 지리적 우위 >



KMI 국제물류위클리

- 다웨이항은 2만~5만 톤급 선박 25척이 접안 가능한 두 개의 항구(총 22개 선석)로 개발될 계획
 - 액체화물, 농산물, 일반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예정이며, 항만 면적은 976만 m²로, 태국 램차방항 규모의 5배임
 - 1단계 공사는 2012년~2016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2단계 공사는 2016년~2020년으로 예정됨
 - 전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1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웨이 심수항 조감도 >



자료: ITD

- ITD사는 자사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DDC(Dawei Develop Company)를 통해 다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공사(약 25억 달러) 추진을 위해 전략적 투자파트너를 물색 중
 - 현재 다웨이-태국 푸남론(Pu Nam Ron)-칸차나부리 국경 연결도로는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으며, 동일 구간 국경 연결철도는 중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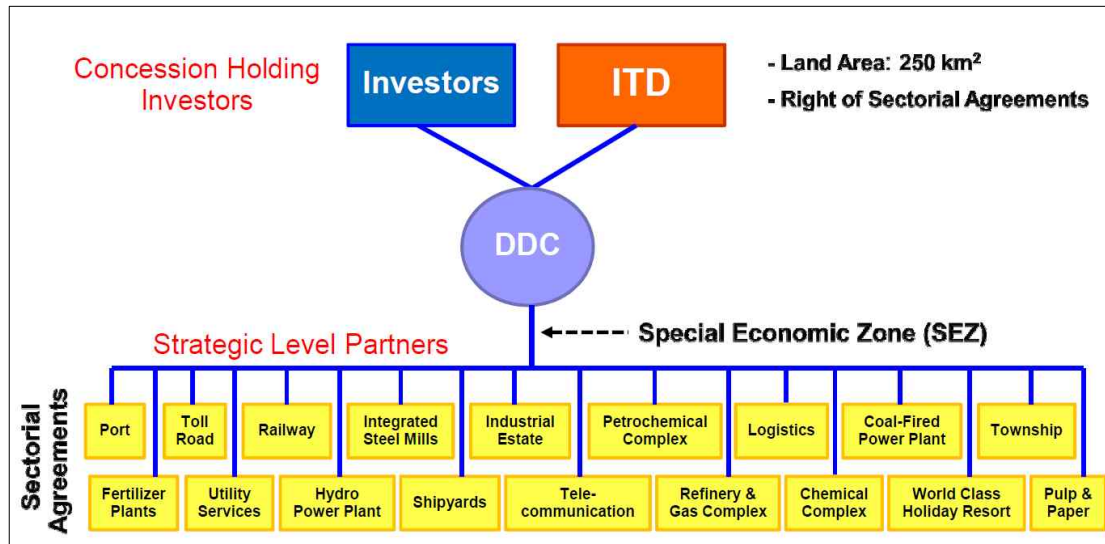
< 다웨이 심수항 및 국경 연결도로/철도 추진 현황 >

프로젝트	투자비용	개발규모	현황
다웨이 심수항	25억 달러	976m ²	투자자 물색, 1단계 공사 2012년 중 착공
국경 연결도로	10억 달러	132km	거의 완공
국경 연결철도	20억 달러	132km	일본/중국 금융기구 관심 표명

주1: 국경 연결도로 및 철도는 다웨이-푸남론-칸차나부리 구간임

자료: Business Monito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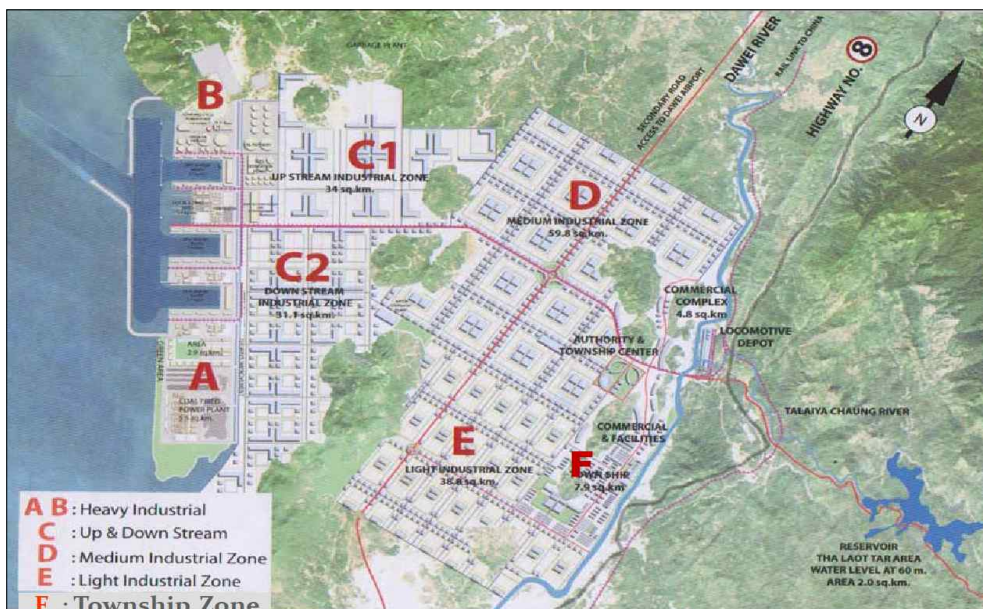
< Dawei Development Company Limited (DDC) >



자료: ITD

- 그밖에 다웨이항 배후 산업단지에는 정유시설과 철강공장의 설립도 계획되어 있음
 - 정유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은 10만 배럴로 계획되어 있으며, 다웨이 산업단지로부터 태국 방콕을 연결하는 유류 및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도 계획되어 있음
 - 철강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600만 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열연코일을 생산하고 그에 필요한 석탄은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수입할 예정임

<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 조감도 >



자료: ITD



KMI 국제물류위클리

3. 시사점

-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거점이며, 중국, 인도 시장의 생산기지로 활용도가 높음
 - 향후 미국과 유럽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선진국의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다웨이항이 완공되면 인도차이나 남부지역의 물류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
 - 인도차이나 남부지역의 중동, 유럽, 아프리카 향 화물들은 더 이상 번잡한 말라카해협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어 아시아-아프리카-유럽 간화물의 운송기간 단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한편 중동, 아프리카발 에너지 공급사슬 구도 또한 다웨이항을 중심으로 재구축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수 년간 미얀마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5.5%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 다웨이항 주요 수혜자인 태국의 2001년~2010년 대 미얀마,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연평균 교역규모 증가율이 15%~21%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웨이항은 향후 인도차이나 지역의 관문이자 무역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앞으로 중국 쿤밍(Kunming)에서 시작되는 국제철도와 연계 및 개통될 경우 다웨이항은 내륙의 라오스와 중국의 윈난(Yunnan)과도 연결되는 아세안 철도 네트워크의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래 인도차이나 물류거점으로 부상할 다웨이항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1년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처음으로 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고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 그러나 미얀마가 행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부라는 점, 그리고 다웨이-방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주요 분쟁지역을 가로 지른다는 부정적인 요인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함



KMI 국제물류위클리

<참고사항>

○ ITD Contact Point

- 담당 부서 : Corporate Services Division
- 주 소 : 2034/132-161 ItalThai Tower, New Petchburi Road, Bangko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 전 화 : 66 (0)2-716-1494
- e-mail : cccs@itd.co.th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호주 서부주(Western Australia), 엔케텔항(Anketell Port)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 호주 서부주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필바라(Pilbara) 지역의 엔케텔항(Anketell Port)에 신규 심해항 및 산업단지 개발 추진을 발표
 - 엔케텔항(Anketell Port)은 호주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헤드랜드항(Port Headland)과 담피어항(Dampier Port)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주로 철광석¹⁾ 및 기타 광물을 처리할 예정
- 엔케텔항은 연간 최대 350백만 톤의 수출화물을 처리할 예정으로 필바라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및 고용 창출은 물론 서부 호주 및 호주 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로 추진될 엔케텔항과 산업단지 개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간 350백만 톤 이상의 수출물량 처리를 위한 공용부두 개발,
 - 중공업 위주의 산업용 토지 개발,
 -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설 등
- 한편 산업단지는 1, 2단계로 구분되어 개발될 예정인데, 5,000ha 규모의 제1산업단지는 주로 광물상품 취급을 목적으로 개발되며, 여기에는 북서부 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될 예정
 - 800ha 규모의 제2산업단지는 3개 철광석 회사²⁾가 생산 거점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
 - 제2산업단지의 경우 토지개발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2015년까지 주 정부 외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

<엔케텔항 전경>



<엔케텔항 및 산업구역 >



자료 : Dredgingtoday.com, 2012. 1. 24.

1) 필바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철광석은 연간 326만 톤 수준으로 2020년까지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www.watoday.com, "New iron ore port for Pilbara", 2010. 3. 4)

2) Australian Premium Iron(API), Fortescue Metals Group(FMG) 및 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oration (MCC Mining)



KMI 국제물류위클리

<참고사항>

- Anketell Port 담당자
 - 담 당 : Gray Simmons
 - 직 위 : Excutive Director
 - 주 소 : Department of State Development Level 6, 1 Adelaide Terrace Ea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4
 - 전 화 : +61 8 9222 0555
 - e-mail : dsd@dsd.wa.gov.au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